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출국부터 공항만지역사회까지 촘촘한 검역망 가동

- 케냐 내 첫 해외유입 확진환자에 이어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차 감염 확인(총 확진 8명)... 해외유입 및 연관 사례로 제한적 전파 확인
- 10월 20일부터 케냐발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및 여행자 주의 안내 문자 발송
- 의료기관 해외여행력(DUR-ITS) 연계로 입국 후 잠복기(21일) 지역사회 감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케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첫 해외유입 환자 발생(10.5.)에 이어 격리 중이던 가족(3명)과 의료진 등(4명)의 추가 확진으로 총 확진자가 8명(사망 1명 포함)으로 늘어남(10.18. 기준)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 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① 국외 감시 동향 및 위험평가

케냐 보건부에 따르면, 첫 번째 환자는 7년간 DR콩고에서 거주하던 케냐 국적자로 한 달 전 증상 발생 후 다수 의료기관 치료를 받던 중 우간다를 육로 경유(10.2.)하여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입국(10.3.) 후 확진(10.5.)되었다.

첫 번째 환자 확진 이후 추가로 확인된 환자 7명은 모두 첫 번째 환자의 밀접 접촉자(가족 3명, 의료진 3명, 돌봄 인력 1명)로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인되었다.

케냐 보건부는 확인된 전체 접촉자 130명 중 128명(98.5%)을 격리 완료(2명 추적 중)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전원이 첫 해외유입 사례와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케냐 발생사례를 반영한 위험평가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어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이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 국내 종합위험도를 이전과 같이 ‘낮음’으로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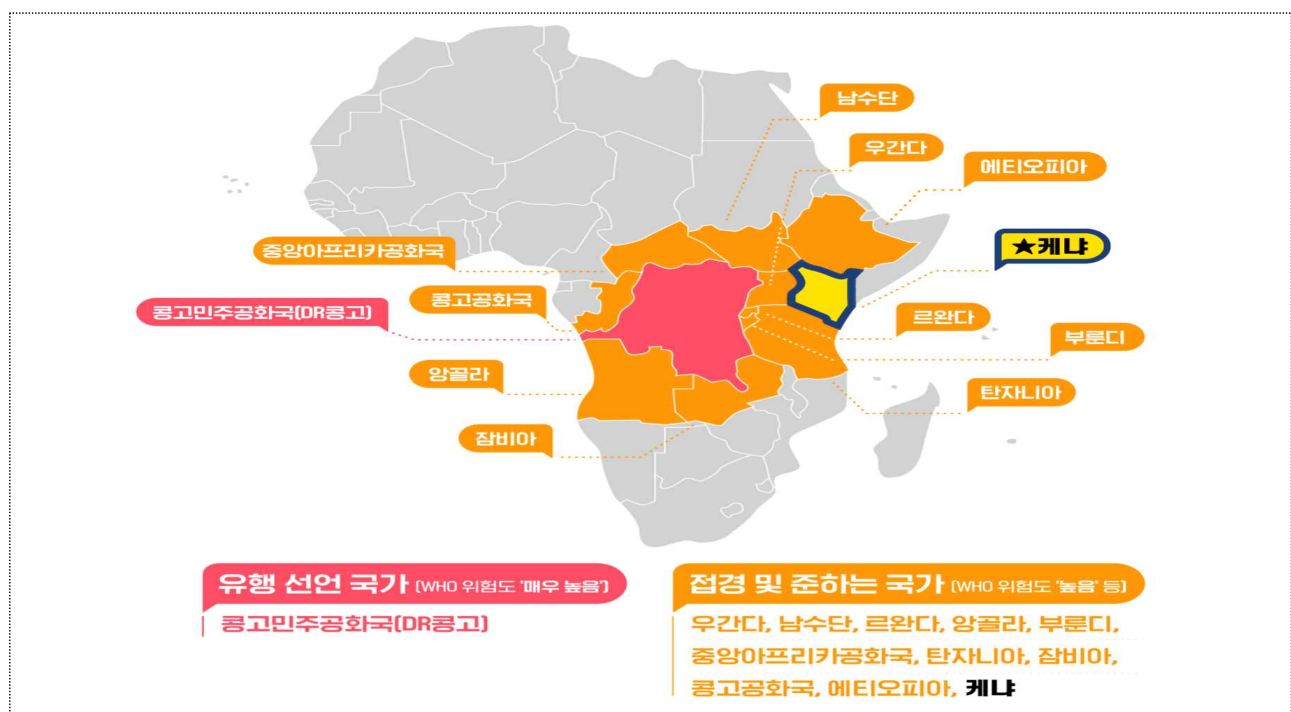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케냐의 첫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10월 8일 케냐에 대한 신속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여행 또는 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② 검역 대응

질병관리청은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이동과 의료기관 방문 등에 따른 케냐 내 추가 전파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며, 해외유입 환자로 인한 2차 감염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역학적 연결고리가 확인된 해외유입 및 연관 발생사례로, 추가 확진자 전원이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인되어 방역망 밖의 지역사회 전파 징후가 없는 점, 대규모 유행이 지속 중인 DR콩고와는 발생 규모 및 전파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도에 비례한 단계별 검역조치*를 실시한다.

* (주요 검역조치)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자 SMS,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제공(DUR-ITS)



위험도 기반 검역대응 (10.20.일부터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10월 20일부터 최근 21일 이내 케냐를 체류·경유하여 들어오는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케냐로 출국 또는 현지 체류 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 후에는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망을 가동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에볼라 검역의 핵심은 공항만 검역심사대 뿐만 아니라 입국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21일의 잠복기 동안 지역사회 감시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데 있는 만큼 출국 단계 안내부터 입국 시 전수 신고, 동네 병·의원 연계까지 검역망을 가동한다”며,

“케냐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입국 후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발생 양상 및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2. 에볼라바이러스병 질병 개요
3.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 수칙
4.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별첨>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문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은 (043-719-9200)
		담당자	사무관	정우재 (043-719-9218)
협조 부서 <협조>	종합상황실	책임자	과 장	김경호 (043-719-9300)
		담당자	역학조사관	김화미 (043-719-9382)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유효순 (043-719-7550)
		담당자	역학조사관	이정현 (043-719-7554)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043-719-7650)
		담당자	역학조사관	오정현 (043-719-7956)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민유정 (043-719-7900)
		담당자	연구관	차정옥 (043-719-9130)



2026.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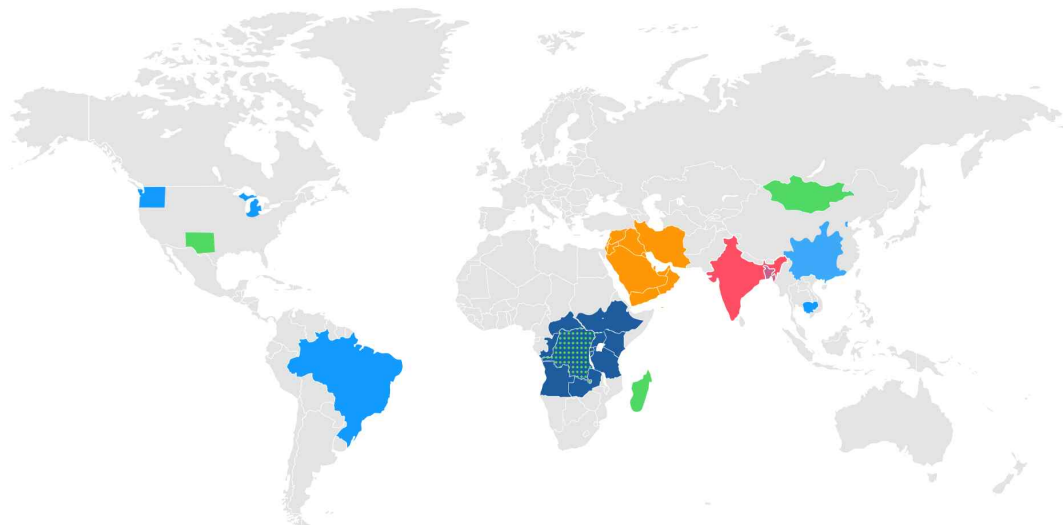


'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미국 (미시간주,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광둥성, 광시 좡족자치구, 쓰촨성, 안휘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톈진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에볼라바이러스병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방글라데시, **인도**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 ☑ [26.10.20.~12.31. 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33개국 지정
-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https://www.kdca.go.kr/> 접속 > 알림 > 자료 > 공지사항]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질병개요		
정의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	
질병분류	제1급감염병(질병코드: A98.3)	
국내발생	없음	
국외발생	최초보고	1976년 DR콩고의 에볼라강 인근 마을 및 남수단 유행 시 처음 보고
	발생국가	가봉,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말리, 세네갈, 수단, 시에라리온, 우간다, 코르티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발생동향	· '14년 이전: DR콩고, 우간다, 등 일부 국가 중심으로 산발적 유행 발생 · '14~'16년, 서아프리카(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대규모 유행 발생 · '17년 이후 DR콩고에서 주로 유행 중이며, '22년 우간다에서도 유행 발생 * (아프리카 지역 외 유입 사례 보고) 이탈리아스페인·영국·미국
병원체	필로바이러스과(<i>Filoviridae</i>) 에볼라바이러스(<i>Ebolavirus</i>)속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 위험군분류: 제4위험군	
병원소	과일박쥐	
감염경로	동물→사람	유행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영양 등 동물과 직접 접촉(사냥한 동물 취급, 섭취 등)
	사람→사람	· 에볼라 환자의 혈액, 체액과 상처 난 피부접촉에 접촉(또는 주사침 자상) ·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 회복한 환자와 성접촉 · 모유수유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
잠복기	2~21일	
증상	· 초기에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허약감,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등 비특이증상 이후,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출혈(점상출혈, 반상출혈, 점막출혈 등) ·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등	
치명률	· 25%~90%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0%~50% (분디부교형, WHO)	
진단	검체(혈액, 체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한 병원체 확인	
치료	대증치료(미국에서 승인된 항체치료제 2종)	
예방	· EMA 및 WHO 승인 자이레 에볼라 백신 2종: '젠티노(Zabdeno)+음바베아(Mvabea)', '어베보(Ervebo)' · 유행 시 방문 자제, 의료 환경에서 감염예방관리 지침 준수 -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접촉 시 개인보호구 사용, 손 위생 등 표준주의 준수 - 확인된 에볼라 환자의 혈액, 체액, 검체 취급 시 주의 등	
관리	발생신고	입국 후 21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
	환자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관리
	접촉자관리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동안 모니터링, 의심 증상 시 의사환자에 준한 조사, 조치
	환경관리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및 환자가 머문 환경 소독,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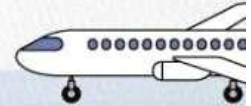
시기	예방 수칙
일반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비누로 손씻기 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손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이용하고 기침, 재채기 후 손 위생 실시
방문 전	■ 외교부 여행안전정보 확인하기 ☞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공지 ■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확인하기 ☞ 중점검역관리지역(12개국)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방문 중	■ 개인위생(손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및 (의심)환자의 사체와 직·간접 접촉 삼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 삼가 ■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 야생동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및 동물사체와 직·간접 접촉 금지, 해당 동물과 그 밖의 정체가 불분명한 동물의 혈액, 체액, 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동굴 체험 자제 ■ 해당 지역 내 성접촉 자제
입국 시	■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입국 후	■ 귀국 후 잠복기(21일) 이내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허약감,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받기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

Electronic Quarantine Registration Guide

Q-CODE电子检疫登记指南



Q-CODE란?

휴대폰 등으로 건강상태를 입력한 후,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검역하는 방법입니다.

Q-CODE is a quarantine method where you input your health status via a mobile phone or other devices and complete quarantine using the issued QR code.

Q-CODE是什么?

Q-CODE是使用手机等设备录入健康状态信息后,通过获取的二维码进行检疫的方法。

사전등록

Pre-registration
提前登记

휴대폰, PC, 태블릿

Mobile phone, PC, tablet
手机、PC、平板电脑



- *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입국장이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더 빠르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 * Registering on-site may lead to congestion in the arrival hall and longer wait times. Pre-registration allows for faster entry.
- * 现场登记时,入境大厅可能因人员拥挤导致等待时间变长。提前登记时,可以更快入境

현장등록

On-site registration
现场登记

휴대폰, 태블릿, 키오스크

mobile phone, tablet or Kiosk
手机、平板电脑、自助服务机

큐코드 입력하러 가기

Go to Enter Q-CODE
前往输入Q-CODE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2, 제41조)

If you are arriving from Strict quarantine inspection areas, you are required to report your health status.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Quarantine Act Article 12-2, Article 41)

在重点检疫管理区域入境时,必须申报健康状态。未申报时,将被处以1千万韩元以下的罚款 (《检疫法》第12条-2、第41条)。